

주관적 지위, 객관적 소득이 외집단 배제에 미치는 상반된 영향: 이중/탈편향(Double/Debiased) 머신러닝을 활용한 인과성 추정

탁 현 삼¹

¹ 메릴랜드대학교

초 록

본 연구는 외집단 배제의 핵심 동인으로 기존 연구에서 주목해 온 객관적 소득뿐만 아니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감에 주목하고, 이들 변수가 다섯 가지 외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2024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다. 연구 결과,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감이 높을수록 외집단에 대한 배타성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나 객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외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외집단에 대한 배타성이 단순한 자원의 결핍이 아닌, 객관적 소득은 높으나 주관적 지위와 안정감이 낮은 지위 불일치에서 기인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 증대 중심의 성장 담론에서 벗어나, 구성원의 삶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고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또한, 단일한 물질적 잣대가 아닌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주관적 지위의 원천을 다변화해야 한다.

주요 용어: 사회경제적 지위, 객관적 소득, 외집단 배제, 경제적 안정감, 지위 불일치, 이중/탈편향 머신러닝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일반적으로 높은 객관적 지위는 외집단 배제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 사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주관적 지위와 객관적 소득이 다양한 외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주관적 지위와 객관적 지위가 다섯 가지 외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전통적인 회귀분석과 이중/탈편향 머신러닝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 다섯 가지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대부분의 모형에서, 주관적 지위, 경제적 안정감은 외집단 배제를 낮추지만 개인 소득은 외집단 배제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지위와 객관적 지위의 상반된 영향이 관찰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 사회에서 고소득층의 배타성은 자신의 성공을 개인의 노력으로 귀인시키는 능력주의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공이 개인의 노력 뿐만 아니라 구조의 산물임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단일한 물질적 잣대가 아닌, 사회적 기여, 문화적 소양, 공동체 활동 참여, 친사회적 활동 등 개개인의 다양한 주관적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주관적 지위의 원천을 다변화해야 한다.

■ 투 고 일: 2026. 01. 29.

■ 수 정 일: 2026. 06. 30.

■ 게재확정일: 2026. 08. 19.

I. 연구 배경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설명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다양한 키워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정(情)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유명 과자 브랜드의 광고에서 보듯, 한국은 서로 간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따뜻함이 강조되는 사회이다. 하지만 ‘혐오의 시대’라는 새로운 키워드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한 202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 단순히 우리나라를 정이 넘치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포장하기는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한국 사회의 갈등 지수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근 6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곽윤경 외, 2024), 성인 남녀 10명 중 8명이 사회 전반의 갈등 수준을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어(한국사회적가치연구원, 트리플라잇, 2025), 사회적 갈등이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갈등의 양상이 과거의 지역주의나 단순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넘어, 나와 다른 속성을 지닌 타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배제와 혐오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한국 성인의 약 95.9%가 진보와 보수 간의 정치적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한국사회적가치연구원, 트리플라잇, 2025),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나 성별 간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곽윤경 외, 2024).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최근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저성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인해 신입사원 채용 등의 기회가 축소되면서 사회 구성원들은 자원 배분을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환경은 내집단과 외집단의 경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나와 다른 특성을 가진 외집단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점은, 기존의 사회학 및 심리학 연구에서 외집단 배제의 핵심 변수로 주목해 온 소득이나 교육 수준과 같은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만으로는 개인의 배타적 태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인 물질적 조건이 충족된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태도를 결정짓는 실질적인 원인은 객관적 자원의 절대량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구성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이하 SSS)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이 상호의존적 자아, 서열화된 비교 문화가 강한 맥락에서는 상향 비교가 일상화되어, 상대적 박탈감과 지위 불안이 증폭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Runciman, 1966; Markus & Kitayama, 1991) 나와 타인을 직접 비교하게 만드는 SSS가 타 문화권에 비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한 것은 SSS 및 경제적 안정감과 같은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소득이 외집단에 대한 태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연관된다고 가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SSS는 소득, 교육, 직업과 같은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표를 통제한 후에도 심리적 지표 및 건강 관련 지표와 독립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객관적 자원과 구별되는 주관적 인식의 중요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Adler et al., 2000). 이러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인식은 외집단에 대한 태도와도 연결된다. 유럽 14개국의 2006년과 2010년 자료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안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국가에서 반이민 정서도 증가한 반면, 경제적 불안 인식이 감소한 국가에서는 반이민 정서 역시 감소하는 패턴이 확인되었다(Kuntz et al., 2017). 또한 이민자와의 경제적 경쟁을 인식하도록 한 실험에서는 이민자의 자립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는 의지가 감소하였다(Jackson & Esses, 2000). 이러한 연구들은 객관적 자원의 수준뿐만 아니라 SSS,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 자원 경쟁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역시 외집단 태도와 독립적으로 연결되며 높은 주관적 지위와 주관적인 경제적 안정감이 관용적 태도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소득과 같은 객관적 자원의 효과가 반드시 이러한 주관적 인식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계층에 관한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는 풍부한 물질적 자원이 개인에게 더 큰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고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 대한 의존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조건에서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적 맥락보다 자신의 내적 상태와 목표, 동기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Kraus et al.,

2012). 같은 맥락으로, 금전적 단서를 활성화한 실험에서는 자기충족적 성향이 강화되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이 감소하며, 혼자 활동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ohs et al., 2006).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객관적 자원과 주관적 지위의 단순한 합으로 환원되기보다, 안정감, 위협 완충, 자기충족적 성향 등과 같은 구분되는 심리적 기제를 통해 외집단 태도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된 영향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급진적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단기간에 소득수준이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지위나 삶의 안정감이 낮은, 이른바 지위 불일치 상태에 놓인 개인이 상당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SSS와 개인소득,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안정감 인식이 다섯 가지 구체적인 외집단, (1) 국내 거주 외국인, (2)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 (3) 종교가 다른 사람, (4) 처음 만난 낯선 사람, (5) 다른 성별에 대한 배제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들 다섯 외집단은 단순히 '나와 다른 이들이 아니라 각기 다른 위협의 차원을 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합 위협 이론(Integrated Threat Theory)에 따르면(Stephan & Stephan, 2000; Stephan & Renfro, 2002), 외집단에 대한 편견은 내집단의 물리적 안녕과 자원을 침해하는 현실적 위협과 가치관·신념 체계를 훼손하는 상징적 위협이라는 독립적 차원에서 발생한다.¹⁾ 이 틀에 기초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한정된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둘러싼 현실적 위협의 대상으로, 정치적 외집단과 타 종교인은 내집단의 이념적, 존재론적 질서를 위협하는 상징적 위협의 대상으로 이론화할 수 있다(Tajfel & Turner, 1979).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은 불확실성과 신뢰 비용의 차원에서, 다른 성별은 한국 사회의 저성장 국면에서 파생된 자원 배분과 공정성 인식의 차원에서 각각 독립적인 외집단으로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분석 방법으로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한 회귀분석과 함께, 이중/탈편향 머신러닝(Double/Debiased Machine Learning, 이하 DML) 방법을 활용한 강건성 검정을 수행하기로 한다(Chernozhukov et al., 2018). DML은 통제변수가 종속변수, 관심변수 각각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을 기계학습으로 추정하여 제거한 후, 관심변수의 인과효과 θ 를 편향 없이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론으로, 전통적 회귀분석으로는 포착하지 못하는 비선형적 상관관계를 통제하는 데 유용하다. 경제학, 사회학을 비롯한 국내 사회과학 분야의 선행 연구 중 DML을 활용한 연구는 드문 것으로 보여, 추후 이 연구 이후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경제적 지위와 외집단 배제

최근의 사회심리학 및 행동경제학 연구들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위치, 즉 SSS가 객관적 지표보다 심리적 안녕과 대인 태도를 설명하는 데 더 중요한 예측 변수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Tan et al.(2020)은 357개 연구와 235만 명 이상의 표본을 종합한 메타분석에서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계수가 SSS의 경우 $r=.22$ 로, 소득을 포함한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의 평균 상관 $r=.16$ 보다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SSS가 단순히 소득 변수를 보조하는 지표가 아니라, 현재 자원뿐 아니라 미래 전망, 비교 준거집단, 사회적 존중과 인정 경험 등 객관적 변수가 포착하기 어려운 심리적 기제를 요약하는 변수임을 의미한다. 국내 연구인 김병조(2000) 역시

1) 통합위협이론의 원래 모형은 현실적 위협, 상징적 위협, 집단간 불안, 부정적 고정관념의 네 요소를 포함하였다(Stephan & Stephan, 2000). 이후 개정 모형에서는 이들이 현실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이라는 두 기본 유형으로 재구성되었다(Stephan & Renfro, 2002).

주관적 변수가 객관적 변수 이상으로 계층의식 결정에 중요함을 밝혔으며, 최광은, 박민진(2021)은 부모의 사회 지위, 객관적 소득, 주관적 사회적 지위를 동시에 투입한 분석에서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불평등 인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침을 보고하여 SSS의 독립적 설명력이 한국 사회에서도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MacArthur 사다리 척도를 활용한 초기 연구에서도 SSS는 객관적 지위와 독립적으로 심리 및 생리 지표와 연관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으며(Adler et al., 2000), SSS의 결정요인이 단순한 소득이나 교육에 환원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연구들도 축적되어 왔다(Singh-Manoux et al., 2003).

핵심은, 객관적 소득과 교육을 통제한 뒤에도 SSS가 우울, 자살사고 등 정신건강 지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이다. 가령, 독일 성인 표본에서 SSS는 우울 증상과 유의하게 연관되었고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 일부를 흡수하는 양상이 보고되었으며(Hoebel et al., 2017), 미국 종단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SSS가 객관적 지위와 별개로 우울 및 자살 관련 지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digan & Daly, 2023). 메타분석에서도 SSS와 건강의 연관성은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특히 정신건강 지표와의 상관이 꾸준히 보고된다(Zell et al., 2018). 대인 태도 영역에서도 SSS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적대적 정서와 공격성으로의 전이를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된다. Greitemeyer & Sagioglou(2016)는 낮은 SSS가 공격성 증가로 연결된다는 점을 보였으며, 실험 조건에서도 낮은 지위 조건이 공격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선행 연구에서 보고한 내용을 종합하면, SSS는 단순히 객관적 지표의 대리변수가 아니라 개인의 심리 상태, 건강, 타인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핵심 예측 변수로 기능한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절대적 기준이 아닌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평가한다는 사회비교이론에 기인한다(Festinger, 1954). 특히 한국과 같이 상호의존적 자아와 서열화된 비교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영향력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가령 서미혜(2017)는 SNS 이용이 상향비교를 촉진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객관적 지위와 주관적 지위 간의 격차를 확대하여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주관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객관적 지위에 대한 판단을 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낮은 주관적 지위가 타인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경로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이 관점은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절대적 수준만으로 평가하기보다 준거집단이나 비교기준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하며, 자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인식할 때 박탈감과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Runciman, 1966). 특히, Greitemeyer & Sagioglou(2016)는 낮은 SSS 조건에서 공격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공격 행동이 불이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대상뿐 아니라 중립적인 대상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이수비 외(2022)의 연구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 위험을 높이는 경로가 확인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된다. 또한 권혜중, 설경옥(2025)은 주관적 지위가 공적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통합감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높으면 이 매개 경로가 차단됨을 보고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핵심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현재의 지위 인식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대리하는 경제적 불안감 또한 배타적 태도를 유발하는 핵심 변수로 기능할 수 있다. Mullainathan & Shafir(2013)가 제안한 희소성 사고(Scarcity Mindset)에 따르면, 주관적인 경제적 결핍은 인지적 대역폭을 감소시켜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터널링 효과를 일으킨다. 희소성이 인지적 대역폭을 제약한다는 이러한 논의를 외집단 배제에 적용하면, 주관적인 경제적 불안정을 경험하는 개인은 복잡한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인지적 여유가 감소하고, 낯설거나 이질적인 타인을 방어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불안감의 부정적 영향은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가령 홍영오 외(2006)는 1,37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회적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취업난, 경제불황, 빈부 격차 등 경제적 요인이며,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사회적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승윤 외(2017) 역시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용불안, 소득 감소, 소비지출 불안정과 주거 빈곤으로 이어지

는 구조를 확인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이 다차원적으로 축적됨을 보여주었다. 나이가 경제적 불안감은 개인의 통제감을 훼손하여 보상적 통제(Compensatory Control) 욕구를 자극한다. Kay et al.(2009)의 보상적 통제 이론에 의하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 인간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외부의 강력한 질서나 구조에 의존하려는 심리적 기제를 작동시킨다. 즉, 개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은 다름을 용인하지 않는 외집단 배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SSS와 경제적 안정감이 높은 경우에는 이와 반대 방향의 심리적 기제가 나타날 수 있다. 확장 및 축적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 정서는 사고와 행동의 레퍼토리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갖는다(Fredrickson, 2001). 이를 본 연구의 맥락에 적용하면 높은 SSS와 경제적 안정감에 수반될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외집단보다 개방적인 태도와 연결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높은 주관적 지위를 가진 개인은 생존에 급급한 협소한 인지 상태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심리적 대역폭을 확보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이질적인 외집단을 잠재적 위협이 아닌 호기심의 대상이나 협력의 기회로 해석할 수 있는 인지적 여유를 갖게 된다(Mullainathan & Shafir, 2013). 이러한 심리적 여유는 상대적 만족감의 개념으로도 설명되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확인된다. 김자영, 김두섭(2013)은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기부 행위가 증가하며, 다양한 인구학적 변수와 객관적 지위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주관적 계층의식의 독립적 효과가 유지됨을 보고하여, 높은 주관적 지위가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짐을 밝혔다. 또한, SSS는 현재의 소득수준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전망을 포괄하는 인지적 평균화(Cognitive Averaging)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ingh-Manoux et al., 2003). 개인은 소득, 학력, 직업적 전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지위를 평가하며, 이는 단순 소득 변수가 포착하기 어려운 복잡한 심리적 기제를 반영한다. 자원 보존 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에 따르면, 이러한 복잡한 자원의 비축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개인은 자원 손실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져 타인과의 자원 공유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Hobfoll, 1989).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객관적 자원의 경우 소득 증가가 반드시 외집단에 대한 포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배타적 태도와 연결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이 존재한다. 풍부한 물질적 자원은 개인의 행동 선택에 대한 자유를 높이고, 타인이나 사회적 맥락보다 자신의 내적 상태, 목표, 동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성향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Kraus et al., 2012). 이에 더해, 금전적 단서를 활성화한 실험에서는 자기충족적 성향이 강화되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이 감소하며, 혼자 활동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ohs et al., 2006).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한 점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성향이 자신의 경제적 성취를 노력과 능력의 결과로 해석하고 사회적 격차를 정당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능력주의 신념과 결합하여 배타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이희정(2022)은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모든 계층에서 능력주의 인식이 소득불평등의 정당화 기제로 작동함을 확인하였으며, 박권일(2021) 역시 한국 능력주의의 특징을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 제도화된 승자독식 구조로 진단하면서, 능력주의가 구조적 불평등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동시에 은폐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입증한 바 있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면, 외집단 배제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는 그것이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것인지, 객관적 자원에 근거한 것인지에 따라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감은 심리적 여유, 인지적 확장, 자원 손실에 대한 낮은 민감도를 통해 외집단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촉진하는 반면, 객관적 소득은 자기 충족적 성향 및 능력주의 성향의 강화를 통해 배타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외집단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가 배제의 대상을 단일한 외집단으로 상정하지 않고 국내 거주 외국인, 정치적 반대자, 타 종교인, 처음 만난 낯선 사람, 다른 성별로 세분화한 것은 외집단 배제의 원인이 외집단의 속성에 따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류의 이론적 토대는 앞서 언급한 통합 위협 이론(Integrated Threat Theory, ITT)이다. 이 이론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배제가 단일한 요인이 아닌, 내집단의 물리적 안녕과 자원을 침해하는 현실적 위협(Realistic Threat)과 가치관, 신념 체계, 세계관을 훼손하는 상징적 위협(Symbolic Threat)이라는 두 가지 독립적인 차원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이 틀을 확장하여 각 외집단을 특정 위협 유형의 대리물로 이론화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현실적 위협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개인은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를 한정된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두고 경쟁하는 제로섬 관계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로 인식할 수 있다(Sherif, 1966). 즉,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배제는 경제적 결핍감이 물리적 생존에 대한 공포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자원 방어 기제이며,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실질적 손실 회피의 동기에 근거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은 경제적 상황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곽윤경 외, 2024), 이는 외국인에 대한 배제가 추상적인 문화적 차이보다 구체적 자원 경쟁 인식에 기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른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윤상우, 김상돈(2010)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외국인 친밀도와 다문화 수용성이 증가하는 반면, 유교적 가치관은 다문화 수용성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주유선 외(2019)는 외집단에 대한 신뢰가 높고 사회 안전감, 경제 만족도가 높을수록 소수자에 대한 명시적 편견이 감소함을 확인하여,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이 외집단 수용성의 핵심 조건임을 입증하였다.

반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종교가 다른 사람은 상징적 위협을 유발하는 집단이다.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가치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내집단에 정서적으로 의존하며(Tajfel & Turner, 1979), 이에 반하는 집단에 거부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치적 외집단은 내집단의 이념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대상으로, 타 종교인은 내집단의 존재론적 질서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경제적 불안정성은 이러한 상징적 위협에 대한 민감도를 증폭시키는데, 이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개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 체계를 더욱 절대화하려는 보상적 통제 욕구를 갖기 때문이다(Kay et al., 2009).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갈등은 단순한 정책 선호의 차이를 넘어 상대 진영을 도덕적으로 열등한 집단으로 규정하는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한국사회적가치연구원, 트리플라잇, 2025), 정치적 외집단에 대한 배제가 상징적 위협 기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정치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김기동, 이재묵(2021)은 한국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를 분석하여, 당파적 정체성의 강도가 이념, 정책 차이에 대한 인식보다 정서적 양극화에 더 큰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김하늬, 정낙원(2016)은 정치적 적대감이 사회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여, 정치적 양극화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동함을 밝혔다. 한편, 이내영(2011)은 한국 이념 갈등 심화의 주요 원인이 일반 국민의 양극화보다 정치엘리트의 양극화에 있음을 보고하여, 정치적 외집단에 대한 배제의 기저에 엘리트 수준의 구조적 요인이 작동할 가능성도 존재함을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성별은 최근 한국 사회의 저성장 구조에서 파생된 지위 경쟁과 공정성 인식의 위협을 대변하는 외집단으로 설정될 수 있다. 사회 내부의 각종 기회가 희소해진 상황에서 젠더는 더 이상 단순한 생물학적 구분이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과 자원 할당을 둘러싼 경쟁의 축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기회의 박탈감을 느끼는 개인에게 다른 성별은 자신의 몫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혜택을 누리는 존재로 인식되어 배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젠더 갈등은 현실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이 중첩되는 복합적 성격을 띤다. 자원 배분을 둘러싼 실질적 경쟁이

라는 점에서 현실적 위협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공정성에 대한 가치관, 성정체성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위협의 성격을 함께 갖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은 세대별, 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류연규, 김영미(2019)는 20대가 젠더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며, 여성은 젠더 불평등인식, 성차별경험이 높을수록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반면 남성은 이와 무관하게 20대, 보수적 성향에서 더 심각하게 인식함을 보고하였다. 김기동 외(2021)는 젠더정체성이 높을수록 젠더갈등 수준이 높으며, 여성과 20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정 사회적 범주에 속하지 않는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은 불확실성과 신뢰 비용의 차원에서 독립적인 외집단으로 설정될 수 있다. 진화심리학의 관점과 오류 관리 이론(Error Management Theory)에 따르면, 낯선 타인은 잠재적 협력자인 동시에 잠재적 위협이라는 이중성을 갖는다(Haselton & Nettle, 2006). 자원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타인을 신뢰하는 것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객관적, 주관적 결핍과 지위 불안을 겪는 개인에게 타인을 신뢰하는 행위는 실패 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으로 인식된다(Mullainathan & Shafir, 2013). 따라서 SSS가 낮거나 경제적 안정감이 부족한 개인에게 낯선 사람은 사회적 자본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III. 연구 방법

1. 데이터와 변수 구성

이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2024 사회통합실태조사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를 주관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통합 수준과 그 변화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여 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허준영 외, 2025). 구체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간 신뢰, 공정성 인식, 관용과 포용, 사회적 소통, 시민 및 정치 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주관적 웰빙과 효능감, 사회보장 체감 등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핵심 영역을 포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진단하고, 갈등 완화 및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도록 설계되었다. 외집단 배제를 대리하는 다양한 변수를 조사했다는 점, 표본 대표성이 높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로 판단하였다.

통제변수는 외집단 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성별은 사회적 태도와 편견 수준에서 성별 간 차이가 보고되어 통제에 포함하였으며(Allport, 1954), 연령대는 세대별 가치관과 외집단 접촉 경험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혼인상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와 사회적 지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외집단에 대한 개방성과 관련될 수 있어 포함하였다. 학력은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구성 요소이자 인지적 유연성 및 다양성 경험과 관련되는 변수로 통제에 포함하였다(Inglehart, 1997).

표 1. 변수 측정 및 코딩 방식

비고	설문지 내용
외집단 배제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0: 매우 따뜻하다 ~ 10: 매우 차갑다, 원 데이터 역코딩) (1)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 (2) 국내 거주 외국인, (3)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 (4) 낯선 사람, (5) 나와 성별이 다른 사람

비고	설문지 내용	
관심 독립변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0: 매우 낮다 ~ 10: 매우 높다)
	경제적 안정감	본인의 현재 경제 상황 안정 정도 (0: 전혀 안정적이지 않다 ~ 10: 매우 안정적이다)
	소득수준	지난 1년 간 월평균 개인 소득 (0: 소득 없음 ~ 12: 1,000만원 이상)
인구사회 요인	성별	0=남성, 1=여성
	연령대	1=19~29세, 2=30대, 3=40대, 4=50대, 5=60세 이상
	혼인상태	1=미혼, 2=배우자 있음(혼인신고 함), 3=배우자 있음(혼인신고 안함) 4=사별, 5=이혼, 6=별거
	학력	0=학위없음, 1=초등학교, 2=중학교, 3=고등학교, 4=대학교(4년제 미만), 5=대학교(4년제 이상), 6=대학원 석사과정, 7=대학원 박사과정

2. 이중/탈편향 머신러닝 방법론

이 연구의 핵심 질문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SSS), 경제적 안정감, 개인소득이 외집단 배제와 각각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선형 회귀분석은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학력 등을 통제하지만, 이러한 배경요인이 사회경제적 지위 및 외집단 배제와 갖는 비선형적 관계는 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귀분석에서 확인된 결과가 특정한 선형 함수형태에 의존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강건성 차원의 분석으로 Double/Debiased Machine Learning(DML)을 활용하기로 한다. 후술할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 DML 분석에서는 다섯 가지 외집단에 대한 배제 점수를 결과변수(종속변수)로 설정하고, SSS, 경제적 안정감, 개인소득을 각각 관심변수로 하여 별도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SSS와 외집단 배제의 관계를 추정할 때는 경제적 안정감과 개인소득,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학력이 SSS와 외집단 배제를 설명하는 부분을 머신러닝으로 각각 추정하여 제거한 뒤, 이들 배경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SSS의 변동과 외집단 배제의 변동 사이의 관계를 추정한다. 경제적 안정감과 개인소득의 효과를 추정할 때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고차원의 통제변수 X 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심 처치변수 D 가 결과변수 Y 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Chernozhukov et al.(2018)의 부분선형회귀모형(Partially Linear Regression)에 기초한 DML을 활용한다. 기본 모형은 다음의 수식과 같다. 이하의 표기에서 Y 는 다섯 외집단 각각의 배제 점수, D 는 모형별 관심변수인 SSS-경제적 안정감-개인소득 중 하나, X 는 나머지 두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와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학력을 의미한다.

$$Y_i = \theta_0 D_i + g_0(X_i) + U_i, \quad E[U_i | D_i, X_i] = 0$$

$$D_i = m_0(X_i) + V_i, \quad E[V_i | X_i] = 0$$

여기서 θ_0 는 본 연구의 관심모수(target parameter)이며, $g_0(\cdot)$ 와 $m_0(\cdot)$ 는 각각 통제변수 X 와 결과변수 Y , 그리고 통제변수 X 와 처치변수 D 사이의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nuisance functions이다. 이때, 본 연구의 식별은 관측가능한 공변량 X 에 조건부한 평균독립 가정에 기초한다. 즉, X 를 충분히 통제한 이후 결과식의 오차항 U_i 는 (D_i, X_i) 에 대해 조건부 평균이 0이고, 처치식의 오차항 V_i 는 X_i 에 대해 조건부 평균이 0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X 가 D 와 Y 를 설명하는 부분을 유연하게 제거한 뒤 남은 D 의 외생적 변동을 이용하여 θ_0 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PLR-DML에서는 다음의 두 조건부 기댓값을 nuisance 함수로 추정한다.

$$\ell_0(X_i) := E[Y_i|X_i], \quad m_0(X_i) := E[D_i|X_i]$$

이 두 nuisance 함수는 머신러닝 방법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머신러닝을 직접 회귀식에 대입하면 정규화 편향(regularization bias)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네이만 직교화(Neyman orthogonality)와 교차적합(cross-fitting)을 결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체 표본을 K 개의 fold $I_1, \dots, I_K$ 로 분할한 뒤(본 연구에서 $K=5$ 로 설정), 각 k 에 대해 I_k^c 를 훈련표본으로 사용하여 nuisance 함수 $\hat{\ell}_0^{(-k)}(\cdot)$ 와 $\hat{m}_0^{(-k)}(\cdot)$ 를 적합하고, I_k 에 속한 관측치들에 대해서만 예측값을 생성한다. 이에 따라 $i \in I_k$ 인 관측치의 직교화된 잔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ilde{Y}_i = Y_i - \hat{\ell}_0^{(-k)}(X_i), \quad \tilde{D}_i = D_i - \hat{m}_0^{(-k)}(X_i)$$

이 절차는 각 관측치의 nuisance 예측값이 반드시 해당 관측치를 제외한 표본에서 학습되도록 함으로써, 예측단계에서의 과적합이 최종 추정량에 직접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DML의 핵심은 Robinson partialling-out에 기초한 네이만 직교 점수(Neyman-orthogonal score)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점수 함수는 다음과 같다.

$$\psi(W_i; \theta, \ell, m) = (Y_i - \ell(X_i) - \theta(D_i - m(X_i)))(D_i - m(X_i))$$

여기서 $W_i = (Y_i, D_i, X_i)$ 이다. 이 함수는 nuisance 함수 추정오차에 대해 1차적으로 둔감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ell_0(\cdot)$ 와 $m_0(\cdot)$ 이 완벽하게 추정되지 않더라도 그 오차가 θ_0 의 추정에 미치는 영향은 1차항이 아니라 더 작은 차수의 항으로 제한된다. 최종적인 추정량은 직교화된 잔차들 간의 회귀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hat{\theta} = \left(\frac{1}{N} \sum_{i=1}^N \tilde{D}_i^2 \right)^{-1} \left(\frac{1}{N} \sum_{i=1}^N \tilde{D}_i \tilde{Y}_i \right)$$

이는 통제변수 X 가 설명하는 부분을 제거한 뒤 남은 $\tilde{D}_i$ 의 변동만으로 $\tilde{Y}_i$ 를 설명하는, 잔차회귀로부터 얻어지는 추정량이다. 즉, D 가 Y 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를 X 의 고차원적, 비선형적 영향을 제거한 후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 추정량의 중요한 성질은 추정오차의 주된 나머지항(remainder term)이 nuisance 함수 추정오차의 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DML 추정량의 편향은 대략적으로 $\|\hat{\ell}_0 - \ell_0\|_2 \times \|\hat{m}_0 - m_0\|_2$ 의 차수로 제어된다. 따라서 두 nuisance 추정량이 각각 $o_p(N^{-1/4})$ 의 속도로만 수렴하더라도, 그 곱은 $o_p(N^{-1/2})$ 가 되어 최종 추정량 $\hat{\theta}$ 는 $\sqrt{N}$ -일치성(root- $\sqrt{N}$ consistency)과 점근정규성(asymptotic normality)을 만족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회귀분석의 표준적인 신뢰구간과 P값을 이용한 가설검정이 가능해진다.

표준오차는 직교 점수에 기초한 sandwich 형태로 계산된다. 구체적으로, 추정된 잔차를 이용해

$$\hat{\psi}_i = (\tilde{Y}_i - \hat{\theta} \tilde{D}_i) \tilde{D}_i, \quad \hat{J} = -\frac{1}{N} \sum_{i=1}^N \tilde{D}_i^2 \quad \text{를 정의하면, 점근분산의 추정치는 } \hat{\sigma}^2 = \frac{\frac{1}{N} \sum_{i=1}^N \hat{\psi}_i^2}{\hat{J}^2} \quad \text{로 주어지며, 최종}$$

표준오차는 $\widehat{SE}(\hat{\theta}) = \sqrt{\hat{\sigma}^2/N}$ 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에 따라 $\hat{\theta}$ 에 대한 신뢰구간과 유의성 검정은 asymptotic normal approximation에 기초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실제 구현에서는 단일 sample split에 따른 우연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위의 절차를 서로 다른 표본분할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한다. 각 반복 $s = 1, \dots, S$ (본 연구에서 $S=10$ 으로 설정)에서 $\hat{\theta}_s$ 와 $\widehat{SE}_s$ 를 계산한 뒤, 최종 추정치는 split별 추정치의 중앙값으로 집계한다.

$$\tilde{\theta} = \text{median}_{s=1, \dots, S} \hat{\theta}_s$$

표준오차 역시 반복분할에 따른 변동을 반영하여 집계하며, 본 연구의 기본 집계식은 다음과 같다.

$$\tilde{SE} = \sqrt{\frac{\text{median}_{s=1, \dots, S} [N \times \widehat{SE}_s^2 + (\hat{\theta}_s - \tilde{\theta})^2]}{N}}$$

이 방식은 각 split 내부의 추정 불확실성과 split 간 변동성을 함께 반영한 것으로, 단일 표본분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해 주는 장점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본 연구에서 DML을 사용하는 핵심 목적은 처치변수 D 와 결과변수 Y 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X)의 영향을 유연하게 제거하는 데 있다. 이때, 통제변수 X 는 원칙적으로 결과변수인 외집단 배제(Y)와 처치변수인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객관적 소득수준, 경제적 안정감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처치변수의 결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변수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학력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이들 변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외집단 배제 태도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적 배경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관심 처치변수의 결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통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모델의 모든 learner에서 회귀분석의 결과가 $p < 0.001$ 수준에서 재현됨을 확인하였다.²⁾

또한 본 연구의 주 목적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 안정감과 객관적 소득수준이 외집단 배제에 갖는 상반된 영향을 비교하는 데 있으므로, 한 변수를 처치변수 D 로 설정하면 나머지 2개의 변수와 인구사회 요인을 모두 통제변수로 설정한 강건성 차원의 DML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를 <부표 1>에 제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아래의 <표 2>는 다섯 가지 외집단에 대한 배제적 태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모든 회귀모형에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제공한 최종 모수추정 가중치를 확률가중치(probability weight)로 적용하였다. 해당 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가구원 수 분포 보정, 표본가구 내 가구원 응답률 보정 및 사후층화 보정을 결합한 최종 조사 가중치이다(허준영 외, 2025).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는 Huber-White 이분산성 강건 분산추정량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모든 설명변수의 VIF는 3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SSS는 다섯 가지 모형 모두에서 외집단 배제와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표 2). 외집단 배제는 0점(매우 따뜻함)에서 10점(매우 차가움)으로 측정되었으며,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SSS가 1점 높아질수록 외집단 배제 점수는 외집단의 유형에 따라 약 0.05~0.10점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인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특정 외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더 낮은 배제 성향을 보였다. 감소 폭은 낯선 사람과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다른 성별에 대해서는 가장 작았다. 경제적 안정감

2) 지면의 분량을 고려하여 결과표는 제시하지 않음.

역시 다섯 가지 외집단 모두에서 외집단 배제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타났다(표 2). 구체적으로, 경제적 안정감이 1점 높아질 때 외집단 배제 점수는 약 0.15~0.32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SS와 경제적 안정감이 모두 0~10점 척도로 측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안정감의 1점 증가에 대응하는 배제 감소 폭은 SSS보다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히 낮은 사람과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감소 폭이 컸고, 다른 성별에 대한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현재 자신의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외집단의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배제 성향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분석 결과

(종속변수: 외집단 배제)	종교적 외집단	국내거주 외국인	낮은 사람	정치적 외집단	다른 성별
변수	β	β	β	β	β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0587** (.0196)	-.0988*** (.0193)	-.0996*** (.0210)	-.0949*** (.0219)	-.0495* (.0198)
경제적 안정감	-.2308*** (.0205)	-.3018*** (.0200)	-.3233*** (.0218)	-.2887*** (.0216)	-.1531*** (.0200)
개인소득	.0493*** (.0139)	.0575*** (.0138)	.0660*** (.0147)	.0359* (.0138)	.0565*** (.0143)
성별 (여성=1)	.1299* (.0533)	.0237 (.0539)	.0892 (.0579)	.0758 (.0564)	.1106* (.0529)
연령대	-.0165 (.0252)	-.0222 (.0254)	-.0108 (.0273)	.0501 (.0274)	.0136 (.0251)
혼인상태 (ref=미혼)					
-배우자 유(혼인신고 함)	.0341 (.0828)	.0838 (.0807)	.0394 (.0870)	-.1060 (.0851)	.0302 (.0764)
-배우자 유(혼인신고 안함)	.0903 (.2102)	.0142 (.2617)	-.1920 (.2727)	.0977 (.2919)	-.3984 (.1947)
-사별	-.1360 (.1450)	.1265 (.1451)	.0526 (.1551)	-.1788 (.1521)	.0093 (.1411)
-이혼	-.1878 (.1794)	-.3454* (.1696)	-.2576 (.1745)	-.1682 (.2330)	-.1258 (.1840)
-별거	.3250 (.4604)	.1821 (.3479)	-.0874 (.5110)	.4286 (.5871)	.0511 (.5611)
학력	.0028 (.0247)	-.0380 (.0265)	.0052 (.0278)	.0775** (.0282)	.0029 (.0252)
Obs	8,251	8,251	8,251	8,251	8,251

주: 소괄호 내의 수치는 robust std. error이다.

*** $p < 0.001$, ** $p < 0.01$, * $p < 0.05$.

반면 개인소득은 SSS 및 경제적 안정감과 반대 방향의 관계를 보였다. 개인소득은 0점(소득 없음)에서 12점(월 평균 1,000만 원 이상)까지의 소득범주로 측정되었으며, 소득수준 코딩이 한 단계 높아질 때 외집단 배제 점수는 약 0.04~0.07점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2). 이러한 정(+)적 관계는 다섯 외집단 모두에서 확인되었으며, 낮은 사람에 대한 증가 폭이 가장 크고 정치적 외집단에 대한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따라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감이 높을수록 외집단 배제가 감소한 것과 달리, 객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배제적 태도는 소폭 증가하는 상반된 패턴이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회귀분석의 결과가 통제변수와 관심변수 사이의 선형적 함수형태에 의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DML을 활용한 강건성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부표 1>에 제시하였다. 각 분석에서는 SSS, 경제적 안정감, 개인소득 가운데 하나를 관심변수로 설정하고, 나머지 두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의 영향을 다양한 learner와 앙상블 방법³⁾을 이용해 통제하였다. DML 분석의 초점은 새로운 효과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표 2>에서 확인된 세 변수가 외집단 배제에 미치는 상반된 영향이 통제변수의 함수 형태, learner 선택을 달리하더라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각 learner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3을 참조).

표 3. 각 learner별 설정 및 설명

구분	설명
OLS	일반 선형회귀 통제변수와 결과변수/처치변수의 관계를 선형으로 가정, 정규화나 tuning 없음.
LASSO	L1 정규화 회귀 glmnet, alpha=1 사용, 내부 5-fold CV로 lambda.min을 선택, 덜 중요한 변수의 계수를 0으로 축소해 변수선택 기능을 가짐.
Ridge	L2 정규화 회귀 glmnet, alpha=0 사용, 내부 5-fold CV로 lambda.min을 선택, 모든 변수를 유지하되 계수 크기를 줄여 다중공선성에 안정적
Random Forest	rf1: 600 trees, min.node.size=5; rf2: 600 trees, min.node.size=500; rf3: 600 trees, min.node.size=2000
XGBoost	nrounds=800, max_depth=4, eta=0.05, subsample=0.8, colsample_bytree=0.8. xgb1: min_child_weight=1, early stopping 10; xgb2: 500; xgb3: 2000
Neural Network	1개 은닉층을 가진 feedforward NN nn1: hidden units 5, decay 1e-4, maxit 300; nn2: units 10, decay 5e-4, maxit 400; nn3: units 20, decay 1e-3, maxit 500. ReLU 은닉층과 선형 출력층 사용
single best	각 fold에서 out-of-fold 예측성능이 가장 좋은 learner를 선택
stacking / CVC average	stacking은 여러 learner 예측값을 비음수 가중치, 합 1 제약으로 결합 CVC average는 예측손실 screening을 통과한 learner만 평균한 수치 기본 CVC_ALPHA=0.20, practical 모드의 bootstrap 반복 수는 CVC_N_BOOT=199

먼저 SSS를 관심변수로 설정한 모델 A에서는 15개의 DML 사양 모두에서 다섯 외집단에 대한 추정치가 부(-)적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특히 세 요약 추정치(single best, stacking, CVC average)를 기준으로 하면, SSS가 1점 증가할 때 외집단 배제 점수는 약 0.06~0.13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회귀분석에서 확인된 SSS와 외집단 배제의 부적 관계가 비선형적인 통제구조를 허용한 경우에도 유지됨을 보여준다. 정치적 외집단에서는 DML의 감소 폭이 회귀분석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으나, 효과의 방향은 두 분석에서 일치하였다. 경제적 안정감을 관심변수로 설정한 모델 B에서도 결과는 매우 일관되었다. 15개 DML 사양 모두에서 다섯 외집단에 대한 추정치가 유의한 부적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세 요약 추정치를 기준으로 경제적 안정감이 1점 증가할 때 외집단 배제 점수는 약 0.13~0.29점 감소하였다.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낮은 사람에 대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고 다른 성별에 대한 감소 폭이 가장 작은 패턴도 유지되었다.

개인소득을 관심변수로 설정한 모델 C에서도 전반적으로 회귀분석과 동일한 정(+)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15개 DML 사양 가운데 xgb3을 제외한 14개 사양에서는 다섯 외집단 모두에서 소득의 추정치가 유의한 정적 방향으로 나타났다. 다만 xgb3 사양에서는 다섯 외집단 모두에서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과 정치적 외집단에서는 추정치의 방향도 음(-)으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single best, stacking, CVC average의 세 요약 추정에서는 다섯 외집단 모두에서 정적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소득수준 코딩이 한 단계 높아질 때 외집단 배제 점수는 약 0.03~0.06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개인소득의 결과는 SSS와 경제적 안정감에

3) OLS, LASSO, Ridge, Random Forest, XGBoost, Neural Network

비해 일부 learner의 설정에 다소 민감한 측면은 있으나, 양상불 추정과 대부분의 개별 사양에서는 회귀분석과 동일한 방향이 재현됨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의 핵심은, 전통적인 회귀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DML을 이용해 통제변수와 관심변수 사이의 관계를 비선형적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본 연구의 핵심적인 패턴은 전반적으로 유지되었다는 데 있다. 즉,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감이 높을수록 외집단 배제는 낮아지는 반면, 객관적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외집단 배제는 높아지는 상반된 관계가 확인되었다. 특히 SSS와 경제적 안정감의 결과는 모든 DML 사양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재현되었으며, 개인소득의 경우에도 한 learner의 사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추정과 세 양상불 결과에서 동일한 방향이 유지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자원의 상반된 관계가 특정한 선형 회귀모형이나 하나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에만 의존한 결과는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나의 단일한 차원으로 간주하기보다,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지위와 경제적 안정감,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유한 경제적 자원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분석은 2차 자료인 2024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한 사회학적 연구로, 심리 기제 자체를 직접 측정한 실험실 연구는 아니므로 관찰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의 측면에서의 연구결과를 아래에서 논하기로 한다.

1. 주관적 지위·경제적 안정감의 포용 효과에 대한 해석

체면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 자신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는 개인은 타인에게 관대해야 한다는 도덕적 압력을 수반하게 된다(최상진, 유승엽, 1992). 따라서 주관적 지위가 높은 한국인들은 외집단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부합하는 도덕적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 이는 확장-축적 이론이 설명하는 인지적 여유에 기반한 포용이, 한국적 맥락에서는 체면에 기반한 시혜적(施惠的) 관용의 성격을 함께 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상진, 유승엽(1992)이 밝힌 바와 같이, 체면은 외현화된 자기로서 사회적 자존심에 해당하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SSS가 높을수록 외집단 배제가 감소하는 패턴은, 높은 주관적 지위를 가진 개인이 체면 유지의 일환으로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 한국 고유의 사회심리적 기제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김자영, 김두섭(2013)이 보고한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기부 행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주관적으로 높은 지위를 인식하는 개인은 타인에게 관대해야 한다는 내적 동기뿐 아니라, 높은 지위에 걸맞은 도덕적 행동을 해야 한다는 체면 의식이 결합하여 포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적 안정감의 효과가 세 관심변수 중 가장 큰 계수를 보였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표 2>에서 경제적 안정감의 효과는 SSS보다 약 2~3배 크게 나타났으며, 이 패턴은 DML 분석에서도 15개 추정 기법 모두에서 안정적으로 재현되었다. 이는 한국인의 외집단 수용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제가 과거와 현재의 누적된 지위 인식(SSS)보다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더 강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적 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안정감은 단순한 현재 재정 상태의 만족을 넘어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직결된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불안이 현재의 객관적 빈곤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추락의 공포에 기인하고 있다는 해석과 부합한다(Ehrenreich, 1989).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인식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의 부정적 영향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홍영오 외(2006)는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취업난, 경제불황, 빈부격차 등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며,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이러한 불안이 유의하게 높음을 보고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경제적 안정감의 긍정적 효과가 SSS의 긍정적 효과보다 2~3배 크게 나타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미래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인의 심리적 여유와 사회적 태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안정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고용 상태나 재정적 미래가 외부 충격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통제감을 유지할 수 있다. <표 2>에서 경제적 안정감의 배제 감소 효과가 낮은 사람($\beta = -.3233$)과 국내 거주 외국인($\beta = -.3018$)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낮은 사람에 대한 배제는 불확실성과 신뢰 비용에 기반하는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개인은 타인을 신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있으므로 신뢰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진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사적 신뢰와 일반적 신뢰의 상관관계가 극히 낮다는 구조적 특수성(김승현, 2008)은, 경제적 안정감이 확보되더라도 낮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자동으로 제고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경제적 안정감의 효과가 낮은 사람에 대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경제적 안정감이 타인에 대한 신뢰를 부분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외국인에 대한 배제 역시 자원 경쟁 인식에 기반한 현실적 위협이 주된 동인인데, 경제적 안정감은 이 현실적 위협 인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상우, 김상돈(2010)이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외국인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것과 일관되게, 본 연구에서도 SSS와 경제적 안정감이 높은 개인은 외국인에 대한 현실적 위협 인식이 낮아져 배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성별에 대한 경제적 안정감의 효과($\beta = -.1531$)는 낮은 사람에 대한 효과($\beta = -.32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DML에서도 다른 성별에 대한 효과가 다섯 외집단 중 가장 작은 패턴이 모든 DML 모델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젠더 갈등은 자원 배분을 둘러싼 현실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이 중첩되는 복합적 성격을 띤다. 한국 사회에서 성별 간 갈등이 경제적 자원 배분을 넘어 능력주의와 공정성 담론과 결합하여 정체성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곽윤경 외, 2024), 경제적 안정감의 확보만으로는 이 긴장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2. 객관적 소득과 외집단 배제

SSS 및 경제적 안정감의 효과와 대조적으로, 객관적 소득이 높을수록 외집단 배제가 강화된다는 분석 결과는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자기충족적 경향과 능력주의 신념에 관한 논의와 부합한다. 입시와 취업이라는 극심한 경쟁 구조를 통과하여 높은 소득을 성취한 한국인은 자신의 지위를 구조적 혜택이 아닌 개인의 노력과 능력의 산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 신념은 압축적인 경제 성장기의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서사를 사회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내면화시킨 결과로, 다른 사회와 문화권에 비해 더욱 강고한 것으로 보고된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보았듯, 박권일(2021)은 한국 능력주의의 특징을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 제도화된 승자독식 구조로 진단하면서, 능력주의가 구조적 불평등의 책임을 개인화하고 은폐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입증하였다. 이희정(2022)은 한국 청년 데이터를 분석하여 모든 계층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인식이 소득불평등의 정당화 기제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능력주의 신념이 고소득층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내면화되어 있으며, 고소득층에서는 능력주의가 자신의 배타적 태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기제로 특히 강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능력주의적 신념은 성공한 자에게는 도덕적 자격을,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책임을 귀속시키는 심리적 근거가 되며(Sandel, 2020), 이 신념이 단순한 경제적 영역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될 때 체제 정당화 효과를 발생시킨다.

<표 2>의 결과에서 개인소득은 경제적 자원 경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외국인($\beta = .0575$)뿐 아니라, 종교적 외집단($\beta = .0493$), 다른 성별($\beta = .0565$), 정치적 외집단($\beta = .0359$)과 같은 비경제적 외집단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였다. DML에서도 양상을 기반 추정치를 기준으로 모든 외집단에 대해 유의한 정적 효과가 안정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득의 배제 효과가 자원 경쟁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기 충족성과 능력주의적 신념에 기반한 인지적 틀이 나와 다른 특성을 가진 외집단 전반으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고소득층이 보이는 배타성은 단순한 물질적 이기심의 발로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도덕적 방어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적어도 외집단 수용성의 차원에서 한국 사회에서 객관적 부의 축적이 시민적 덕성이나 사회적 연대로 직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정치적 외집단에 대한 소득의 효과($\beta=.0359$)가 다른 외집단에 비해 가장 작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패턴은 DML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과소적합된 추정기법(xgb3)에서는 정치적 외집단에 대한 소득 효과가 비유의하거나 부적 방향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이는 정치적 태도와 이념적 갈등이 소득 수준보다는 정치 사회화 과정, 세대 경험, 미디어 소비 패턴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더 강하게 규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양극화는 소득 계층을 가로질러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한국사회적가치연구원, 트리플라잇, 2025), 정치적 외집단에 대한 배제는 객관적 소득보다 이념적 정체성 혹은 주관적 인식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이내영(2011)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한국의 이념갈등 심화가 일반 국민의 양극화보다 정치엘리트의 양극화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은, 정치적 외집단에 대한 배제가 개인의 경제적 조건보다 엘리트 수준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더 강하게 영향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 소득의 효과가 정치적 외집단에 대해 가장 제한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V. 논의

본 연구의 핵심 발견은 SSS·경제적 안정감과 객관적 소득이 외집단 배제에 대해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 발견은 회귀분석뿐 아니라 OLS, LASSO, Ridge, Random Forest, XGBoost, Neural Network 및 이들의 앙상블을 포함한 DML 추정기법 모두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으며(부표 1 참조),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단순히 자원의 총량이라는 단일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물질적 부와 심리적 지위감은 서로 다른 동기 부여 체계를 활성화시키며, 개인이 놓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자원이라는 두 축으로 분해하여 살펴보아야 외집단 배제의 기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소득이 외집단 배제에 미치는 상반된 영향은 지위 불일치(Status Inconsistency)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Lenski(1954)에 따르면, 개인이 보유한 여러 지위 차원(소득, 교육, 직업, 주관적 인정 등) 간의 불일치는 심리적 긴장을 유발하며, 이 긴장은 사회적 태도와 행동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유형은 객관적 소득은 높으나 SSS나 경제적 안정감이 낮은 상태, 즉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불안한 상태에 놓인 개인이다. 이러한 개인은 높은 소득이 활성화시키는 자기 충족성과 체제 정당화 동기에 의해 배타적 태도를 갖게 되는 동시에, 높은 주관적 지위와 안정감이 제공했을 인지적 확장과 심리적 여유의 완충 효과는 결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객관적 소득의 배제 효과가 주관적 변수에 의해 상쇄되지 못하고 그대로 외집단에 표출된다. Ehrenreich(1989)의 연구에서 언급된 '추락의 두려움'은 이러한 지위 불일치 상태에 놓인 개인의 심리를 잘 설명해 준다. 소득이 높더라도 자신의 지위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불안정한 개인은 자원 손실의 잠재적 공포에 더 시달리게 되며, 이 공포는 낯선 사람,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정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 다른 성별까지 잠재적 위협이나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든다. 반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SSS와 경제적 안정감이 높은 개인은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가지므로, 객관적 소득이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자원 보호 본능이나 배타적 태도가 완화되는 완충 효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포용성은 '내가 얼마나 많이 버는가가 아니라' '내 삶에 얼마나 만족감과 안정감, 그리고 통제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의해 더 강하게 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론은 한국 사회의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해 정책적,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첫째, 정책적 차원에서 단순한 소득 증대에 집중하는 성장 방향에서 삶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로의 목표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개인소득의 증가는 외집단 배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며, 외집단에 대한 배제를 감소시키는 핵심 변수는 경제적 안정감이었다. 이는 단순히 국민 소득을 높이는 성장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경쟁으로 인한 능력주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파편화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음을 뜻한다. 대신, 고용 안정망의 확충, 주거 안정성 확보, 예측가능한 노후 보장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구성원들이 느끼는 경제적 안정감을 제고하는 것이 사회적 신뢰 회복과 외집단 포용에 더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안정감의 배제 감소 효과가 SSS보다 약 2~3배 큰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표 2 참조)는,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사회통합에 가장 확실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 능력주의 신화의 완화와 다원적 가치의 인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고소득층의 배타성은 자신의 성공을 오로지 개인의 노력으로 귀인시키는 능력주의적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이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과 구조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담론 구조의 전환 없이는 고소득층의 배타적 태도를 완화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단일한 물질적 잣대가 아닌, 사회적 기여, 문화적 소양, 공동체 활동 참여, 친사회적 활동 등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주관적 지위의 원천을 다변화해야 한다. 김병조(2000)가 한국인의 주관적 계층의식 결정에 주관적 변수가 객관적 변수 이상으로 중요함을 밝힌 것은, 주관적 지위의 원천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한 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외집단 유형에 따라 배제의 기제가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갈등 완화 정책이 일률적이어서는 안 되며 외집단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낯선 사람과 외국인에 대한 배제는 현실적 위협과 신뢰 비용에 기반하므로, 경제적 안정감의 제고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젠더 갈등은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표 2>에서 다른 성별 외집단에 대한 경제적 안정감의 효과($\beta = -.1531$)는 낯선 사람에 대한 효과($\beta = -.32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안정감이 자원 경쟁이나 신뢰 비용에 기반한 위협은 효과적으로 완화하지만 젠더 갈등에 내재된 정체성, 공정성 차원의 긴장에 대해서는 제한적 영향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다른 성별(남성)에 대한 외집단 배제가 유의하게 높다는 분석 결과($\beta = .1106, p < .05$)는 최근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 구조와 연관하여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노동시장, 가사 분담 등 다방면에서 구조적 불평등을 경험해 온 집단이다. 이러한 누적된 불평등 경험은 남성 중심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저항적 정서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것이 다른 성별인 남성에게 대한 심리적 거리감으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더 높은 외집단 배제를 보인 것은 단순한 편견이라기보다,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반응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교적 외집단에 대한 여성의 높은 배제 성향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종교 참여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 활동은 종교적 내집단에 대한 강한 정서적 소속감을 형성하며, 이는 사회 정체성 이론(Tajfel & Turner, 1979)이 설명하는 내집단 편향을 강화하여 타 종교에 대한 상징적 위협 인식을 높이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성별 효과가 종교적 외집단과 다른 성별에서만 선택적으로 나타나고 외국인, 낯선 사람, 정치적 외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성별에 따른 외집단 배제의 차이가 단순히 통합 위협 이론에서 가정하는 현실적 위협, 상징적 위협의 범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특정 정체성과 연관된 위협 유형(다른 성별인 남성,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서만 발현됨을 보여준다.

정치적 외집단에 대한 배제 역시 경제적 변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정치적 외집단에 대한 개인소득의 효과($\beta=.0359$)는 다섯 외집단 중 가장 작았으며, DML 분석에서도 일부 추정기법(xgb3)에서 정치적 외집단에 대한 소득 효과가 비유의하거나 방향이 전환되는 불안정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정치적 외집단에 대한 배제가 소득이나 경제적 안정감보다는 이념적 정체성, 정치 사회화 과정, 미디어 소비 패턴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더 강하게 규정됨을 시사한다. 앞서 본 김기동, 이재묵(2021)이 한국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에서 당파적 정체성 강도가 이념·정책 차이 인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결과는, 정치적 외집단 배제의 동인이 경제적 변수와는 독립적인 정체성 기제를 통해 작동함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정치적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처방보다 속의 민주주의의 확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치적 소통 공간의 다양화와 같은 비경제적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탁현삼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노어, 경제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University of Maryland) 사회학과에서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이며, 본 논문 투고 시점에는 한국 개발연구원에서 RA로 재직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친사회적 행동, 사회경제적 지위, 자살, 그리고 저출산이다. 주요 연구로 “National suicide mortality is associated with lower reported prosocial participation” 등이 있다. 저자의 다른 연구는 저자의 C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samtak@umd.edu)

참고문헌

- 곽윤경, 김기태, 정세정, 강예은, 김지원. (202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XI): 이주민과 사회통합.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doi.org/10.23060/kihasa.a.2024.24>
- 권혜중, 설경옥. (2025). 주관적 지위와 사회통합감의 관계에서 공적 사회참여와 상대적 박탈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6(4), 277-290. <http://doi.org/10.16881/jss.2025.10.36.4.277>
- 김기동, 이재묵. (2021).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정체성과 정서적 양극화. *한국정치학회보*, 55(2), 57-8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30875>
- 김기동, 정다빈, 이재묵. (2021). 한국인의 젠더정체성과 젠더갈등. *한국정치학회보*, 55(4), 5-42. <http://doi.org/10.18854/kpsr.2021.55.4.001>
-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4(2), 241-268.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1566827>
- 김승현. (2008).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2(2), 67-88. <http://doi.org/10.18854/kpsr.2008.42.2.004>
- 김자영, 김두섭. (2013).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자본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3(2), 401-430. <http://doi.org/10.15709/hswr.2013.33.2.401>
- 김하늬, 정낙원. (2016). 정치적 태도 극화 및 적대감 증가 요인과 그 결과에 대한 탐색 연구: 커뮤니케이션 변인, 정치참여,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43), 45-82. <http://doi.org/10.35731/kpca.2016..43.002>
- 류연규, 김영미. (2019). 한국사회 젠더갈등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6(4), 131-160. <http://doi.org/10.17000/kspr.26.4.201912.131>
- 박권일. (2021). 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 *시민과 세계*, (38), 1-39. <http://doi.org/10.35548/cw.2021.06.38.1>
- 서미혜. (2017). SNS 이용이 상대적 박탈감과 객관적 주관적 경제 지위 간 격차를 거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83(3), 72-95. <http://doi.org/10.46407/kjci.2017.06.83.72>
- 윤상우, 김상돈. (2010).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 91-117. <http://doi.org/10.15820/khjss.2010.36.1.005>
- 이내영. (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 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 양극화인가? *한국정당학회보*, 10(2), 251-28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85794>
- 이수비, 신예림, 윤명숙. (2022).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미래전망과 사회적 고립의 순차적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2(2), 369-389. <http://doi.org/10.15709/hswr.2022.42.2.369>
- 이승운,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 (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99451>
- 이희정. (2022). 청년들은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회계층 인식과 능력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6(2), 45-8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45121>
- 주유선, 김기태, 김보미. (2019).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연구보고서 2019-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4874>
- 최광은, 박민진. (2021). 청년의 주관적 사회지위가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사회과학연구*, 32(4), 209-238. <http://doi.org/10.16881/jss.2021.10.32.4.209>
- 최상진,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6(2), 137-157. <https://acceson.kr/ksppa/v.6/2/137/25443>

- 한국사회적가치연구원(CSES), 트리플라잇(Triplelight). (2025. 10. 18.).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Report]. Triplelight Insights. <https://www.triplelight.co/insight/2025-korean-social-problems-report>
- 허준영, 김문현, 김경동. (2025).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공표용 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https://sky.kipa.re.kr/%24/10130/contents/7147339>
- 홍영오, 송관재, 이재창, 박수애, 이해진. (2006).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29-16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36138>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https://doi.org/10.1037//0278-6133.19.6.586>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Addison-Wesley.
- Chernozhukov, V., Chetverikov, D., Demirer, M., Duflo, E., Hansen, C., Newey, W., & Robins, J. (2018). Double/debiased machine learning for treatment and structural parameters. *The Econometrics Journal, 21*(1), C1-C68. <https://doi.org/10.1111/ectj.12097>
- Ehrenreich, B. (1989). *Fear of falling: The inner life of the middle class*. Pantheon Books.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https://doi.org/10.1177/001872675400700202>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https://doi.org/10.1037//0003-066x.56.3.218>
- Greitemeyer, T., & Sagioglou, C. (2016).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causes aggression: A test of the theory of social depr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1*(2), 178-194. <https://doi.org/10.1037/pspi0000058>
- Haselton, M. G., & Nettle, D. (2006). The paranoid optimist: An integrative evolutionary model of cognitive bias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1), 47-66. https://doi.org/10.1207/s15327957pspr1001_3
- Hobfoll, S. E. (1989). Conservation of resources: A new attempt at conceptualizing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4*(3), 513-524. <https://doi.org/10.1037/0003-066X.44.3.513>
- Hoebel, J., Maske, U. E., Zeeb, H., & Lampert, T. (2017). Social inequalitie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ults: The role of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PLOS ONE, 12*(1), e0169764.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69764>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2307/j.ctv10vm2ns>
- Jackson, L. M., & Esses, V. M. (2000). Effects of perceived economic competition on people's willingness to help empower immigrant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3*(4), 419-435. <https://doi.org/10.1177/1368430200003004006>
- Kay, A. C., Whitson, J. A., Gaucher, D., & Galinsky, A. D. (2009). Compensatory control: Achieving order through the mind, our institutions, and the heave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5), 264-268. <https://doi.org/10.1111/j.1467-8721.2009.01649.x>
- Kraus, M. W., Piff, P. K., Mendoza-Denton, R., Rheinschmidt, M. L., & Keltner, D. (2012). Social class, solipsism, and contextualism: How the rich are different from the poor. *Psychological Review, 119*(3), 546-572. <https://doi.org/10.1037/a0028756>
- Kuntz, A., Davidov, E., & Semyonov, M. (2017). The dynamic relations between economic conditions and anti-immigrant sentiment: A natural experiment in times of the European economic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58*(5), 392-415. <https://doi.org/10.1177/0020715217690434>

- Lenski, G. E. (1954). Status crystallization: A non-vertical dimension of social statu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4), 405–413.
- Madigan, A., & Daly, M. (2023). Socioeconomic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ity: The role of subjective social statu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26, 36–43. <https://doi.org/10.1016/j.jad.2023.01.078>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https://doi.org/10.1037/0033-295X.98.2.224>
- Mullainathan, S., & Shafir, E. (2013). *Scarcity: Why having too little means so much*. Times Books.
- Runciman, W. G. (1966).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justice: A study of attitudes to social inequality in twentieth-century England*. Routledge & Kegan Paul. <https://doi.org/10.2307/589189>
- Sandel, M. J. (2020).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Farrar, Straus and Giroux.
- Sherif, M. (1966). *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Their social psychology*. Routledge & Kegan Paul. <https://doi.org/10.4324/9781315717005>
- Singh-Manoux, A., Adler, N. E., & Marmot, M. G. (2003). Subjective social status: Its determinants and its association with measures of ill-health in the Whitehall II study. *Social Science & Medicine*, 56(6), 1321–1333. [https://doi.org/10.1016/s0277-9536\(02\)00131-4](https://doi.org/10.1016/s0277-9536(02)00131-4)
- Stephan, W. G., & Renfro, C. L. (2002). The role of threat in intergroup relations. In D. M. Mackie & E. R. Smith (Eds.), *From prejudice to intergroup emotions: Differentiated reactions to social groups* (pp. 191–208). Psychology Press.
- Stephan, W. G., & Stephan, C. W. (2000). An integrated threat theory of prejudice. In S. Oskamp (Ed.), *Reduc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pp. 23–45).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33–47). Brooks/Cole.
- Tan, J. J. X., Kraus, M. W., Carpenter, N. C., & Adler, N. E. (2020). The association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6(11), 970–1020. <https://doi.org/10.1037/bul0000258>
- Vohs, K. D., Mead, N. L., & Goode, M. R. (2006).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money. *Science*, 314(5802), 1154–1156. <https://doi.org/10.1126/science.1132491>
- Zell, E., Strickhouser, J. E., & Krizan, Z. (2018). Subjective social status and health: A meta-analysis of community and society ladders. *Health Psychology*, 37(10), 979–987. <https://doi.org/10.1037/hea0000667>

부표 1. 이중/탈편향 머신러닝(DML)을 활용한 인과효과 추정

(종속변수: 외집단 배제)	종교적 외집단	국내거주 외국인	낮선 사람	정치적 외집단	다른 성별
처치변수 및 추정기법	$\hat{\theta}$	$\hat{\theta}$	$\hat{\theta}$	$\hat{\theta}$	$\hat{\theta}$
모델 A: 처치변수(D_1)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ols	-0.0829 (<0.0001)	-0.0995 (<0.0001)	-0.0866 (<0.0001)	-0.1438 (<0.0001)	-0.0733 (<0.0001)
lasso	-0.0829 (<0.0001)	-0.1001 (<0.0001)	-0.0870 (<0.0001)	-0.1445 (<0.0001)	-0.0735 (<0.0001)
ridge	-0.0832 (<0.0001)	-0.0997 (<0.0001)	-0.0870 (<0.0001)	-0.1441 (<0.0001)	-0.0737 (<0.0001)
rf1	-0.0719 (<0.0001)	-0.0927 (<0.0001)	-0.0811 (<0.0001)	-0.1272 (<0.0001)	-0.0637 (<0.0001)
rf2	-0.0801 (<0.0001)	-0.1047 (<0.0001)	-0.0927 (<0.0001)	-0.1445 (<0.0001)	-0.0670 (<0.0001)
rf3	-0.1012 (<0.0001)	-0.1366 (<0.0001)	-0.1246 (<0.0001)	-0.1757 (<0.0001)	-0.0778 (<0.0001)
xgb1	-0.0723 (<0.0001)	-0.0930 (<0.0001)	-0.0797 (<0.0001)	-0.1231 (<0.0001)	-0.0629 (<0.0001)
xgb2	-0.0759 (<0.0001)	-0.0986 (<0.0001)	-0.0875 (<0.0001)	-0.1404 (<0.0001)	-0.0690 (<0.0001)
xgb3	-0.1584 (<0.0001)	-0.2261 (<0.0001)	-0.2181 (<0.0001)	-0.2750 (<0.0001)	-0.1326 (<0.0001)
nn1	-0.0714 (<0.0001)	-0.0950 (<0.0001)	-0.0806 (<0.0001)	-0.1247 (<0.0001)	-0.0609 (<0.0001)
nn2	-0.0700 (<0.0001)	-0.0944 (<0.0001)	-0.0771 (<0.0001)	-0.1264 (<0.0001)	-0.0625 (<0.0001)
nn3	-0.0701 (<0.0001)	-0.0944 (<0.0001)	-0.0788 (<0.0001)	-0.1266 (<0.0001)	-0.0634 (<0.0001)
single_best	-0.0710 (<0.0001)	-0.0943 (<0.0001)	-0.0797 (<0.0001)	-0.1231 (<0.0001)	-0.0629 (<0.0001)
stack	-0.0723 (<0.0001)	-0.0950 (<0.0001)	-0.0813 (<0.0001)	-0.1246 (<0.0001)	-0.0633 (<0.0001)
cvc_average	-0.0725 (<0.0001)	-0.0957 (<0.0001)	-0.0806 (<0.0001)	-0.1252 (<0.0001)	-0.0635 (<0.0001)
모델 B: 처치변수(D_2) 경제적 안정감					
ols	-0.1968 (<0.0001)	-0.2836 (<0.0001)	-0.3034 (<0.0001)	-0.2844 (<0.0001)	-0.1389 (<0.0001)
lasso	-0.1972 (<0.0001)	-0.2840 (<0.0001)	-0.3034 (<0.0001)	-0.2844 (<0.0001)	-0.1381 (<0.0001)
ridge	-0.1974 (<0.0001)	-0.2838 (<0.0001)	-0.3037 (<0.0001)	-0.2847 (<0.0001)	-0.1390 (<0.0001)
rf1	-0.1858 (<0.0001)	-0.2689 (<0.0001)	-0.2924 (<0.0001)	-0.2732 (<0.0001)	-0.1325 (<0.0001)
rf2	-0.1917 (<0.0001)	-0.2764 (<0.0001)	-0.2954 (<0.0001)	-0.2803 (<0.0001)	-0.1339 (<0.0001)
rf3	-0.1949 (<0.0001)	-0.2853 (<0.0001)	-0.3017 (<0.0001)	-0.2922 (<0.0001)	-0.1346 (<0.0001)
xgb1	-0.1870 (<0.0001)	-0.2696 (<0.0001)	-0.2899 (<0.0001)	-0.2692 (<0.0001)	-0.1311 (<0.0001)
xgb2	-0.1944 (<0.0001)	-0.2748 (<0.0001)	-0.2936 (<0.0001)	-0.2785 (<0.0001)	-0.1389 (<0.0001)

(종속변수: 외집단 배제)	종교적 외집단	국내거주 외국인	낮선 사람	정치적 외집단	다른 성별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xgb3	-0.2232 (<0.0001)	-0.3154 (<0.0001)	-0.3250 (<0.0001)	-0.3393 (<0.0001)	-0.1608 (<0.0001)
nn1	-0.1860 (<0.0001)	-0.2737 (<0.0001)	-0.2908 (<0.0001)	-0.2713 (<0.0001)	-0.1318 (<0.0001)
nn2	-0.1886 (<0.0001)	-0.2682 (<0.0001)	-0.2867 (<0.0001)	-0.2741 (<0.0001)	-0.1322 (<0.0001)
nn3	-0.1890 (<0.0001)	-0.2673 (<0.0001)	-0.2893 (<0.0001)	-0.2696 (<0.0001)	-0.1307 (<0.0001)
single_best	-0.1893 (<0.0001)	-0.2696 (<0.0001)	-0.2899 (<0.0001)	-0.2705 (<0.0001)	-0.1317 (<0.0001)
stack	-0.1907 (<0.0001)	-0.2718 (<0.0001)	-0.2926 (<0.0001)	-0.2731 (<0.0001)	-0.1335 (<0.0001)
cvc_average	-0.1886 (<0.0001)	-0.2702 (<0.0001)	-0.2904 (<0.0001)	-0.2706 (<0.0001)	-0.1317 (<0.0001)

모델 C: 처치변수(D_3) 개인소득

ols	0.0438 (<0.0001)	0.0548 (<0.0001)	0.0593 (<0.0001)	0.0418 (0.0006)	0.0440 (<0.0001)
lasso	0.0440 (<0.0001)	0.0553 (<0.0001)	0.0596 (<0.0001)	0.0418 (0.0006)	0.0441 (<0.0001)
ridge	0.0438 (<0.0001)	0.0549 (<0.0001)	0.0594 (<0.0001)	0.0418 (0.0006)	0.0442 (<0.0001)
rf1	0.0412 (0.0003)	0.0514 (<0.0001)	0.0593 (<0.0001)	0.0328 (0.0115)	0.0344 (0.0034)
rf2	0.0364 (0.0012)	0.0468 (<0.0001)	0.0538 (<0.0001)	0.0313 (0.0127)	0.0344 (0.0027)
rf3	0.0279 (0.0105)	0.0340 (0.0021)	0.0417 (0.0007)	0.0244 (0.0437)	0.0310 (0.0049)
xgb1	0.0396 (0.0005)	0.0509 (<0.0001)	0.0583 (<0.0001)	0.0348 (0.0070)	0.0349 (0.0029)
xgb2	0.0421 (0.0002)	0.0514 (<0.0001)	0.0589 (<0.0001)	0.0299 (0.0200)	0.0345 (0.0031)
xgb3	0.0055 (0.6311)	-0.0005 (0.9620)	0.0057 (0.6467)	-0.0218 (0.0733)	0.0116 (0.2830)
nn1	0.0427 (0.0002)	0.0514 (<0.0001)	0.0610 (<0.0001)	0.0326 (0.0101)	0.0391 (0.0007)
nn2	0.0422 (0.0002)	0.0532 (<0.0001)	0.0602 (<0.0001)	0.0312 (0.0207)	0.0388 (0.0008)
nn3	0.0420 (0.0002)	0.0551 (<0.0001)	0.0613 (<0.0001)	0.0298 (0.0194)	0.0382 (0.0010)
single_best	0.0394 (0.0006)	0.0503 (<0.0001)	0.0583 (<0.0001)	0.0348 (0.0070)	0.0350 (0.0027)
stack	0.0407 (0.0004)	0.0516 (<0.0001)	0.0590 (<0.0001)	0.0323 (0.0122)	0.0363 (0.0018)
cvc_average	0.0403 (0.0004)	0.0506 (<0.0001)	0.0588 (<0.0001)	0.0329 (0.0106)	0.0364 (0.0018)

주: 1) 소괄호 내의 수치는 P-value.

2) 각 모델별로 추정에 약 26시간 소요.

Divergent Effects of Subjective Status and Objective Income on Outgroup Exclusion: Causal Inference Using Double/Debiased Machine Learning

Tak, Hyeonsam¹

¹ University of Maryland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objective income,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perceived economic security as determinants of outgroup exclusion. Using data from the 2024 Social Integration Survey, it analyzes how these factors are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 five outgroups. The findings show that objective income, subjective status, and perceived economic security are related to outgroup acceptance in opposite directions. Individuals with higher subjective status and greater perceived economic security report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outgroup exclusion. By contrast, individuals with higher objective income report stronger exclusionary attitudes toward outgroups. In the Korean context, this pattern may reflect the way material affluence reduces perceived dependence on others and strengthens a sense of self-sufficiency. When coupled with meritocratic beliefs, material affluence may also reinforce the defense of existing privilege and weaken social solidarity. The study shows that outgroup exclusion in Korea is not simply a response to resource scarcity. It is also associated with status inconsistency, especially when objective income is high but subjective status and perceived economic security are low.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fforts to reduce social conflict and promote social integration should move beyond a growth-centered focus on income. They should instead emphasize life predictability and psychological security. A more integrative society also requires broader sources of subjective status, supported by a social climate in which multiple forms of value are recognized rather than judged by a single material standard.

Keywords: Socioeconomic Status, Objective Income, Outgroup Exclusion, Economic Security, Status Inconsistency, Double/Debiased Machine Learning